

농촌도시지역 유·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의 재조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유 승 우 (You, Seung-woo)\*

(E-mail : uswoo@naver.com)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22일

---

\* 학위취득대학 : 미국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현직: 호남대학교 교수

## 농촌도시지역 유·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의 재조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 <국문요약>

교육의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초적인 교육여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 외형적으로 보아 같은 거주 지역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교육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육 지원상의 간접차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은 지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 추이, 학령인구와 학생 수, 교원 수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농촌도시의 특성을 지닌 광산구의 교육여건을 2000년과 2009년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았다.

[ 주제어 ] 초중등교육, 교육여건, 광산구

## I. 서론

교육은 의무교육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형태의 교육에서 모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필요할 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을 뿐 아니라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감당가능성, affordability), 개인의 주거지역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교육의 질(qua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West 2006). 국가 수준에서 의무교육제도를 두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적 혜택을 누

리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수준이나 경제적 역량의 차이에 따라 모든 교육비 부담을 개인이 하는 경우에서부터 대학원 교육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교육여건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구분은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과 통계적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방법<sup>1)</sup>은 통계적 구분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는 행정구역으로는 광역시에 속한 하나의 구(區)로서 도시에 해당되지만, 1988년 농촌도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송정리’와 ‘광산군’이 농촌이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심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이 야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 하였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바, 성별 등을 이유<sup>2)</sup>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의견상 중

- 
- 1) 도시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 지표로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1차 산업의 비중 등으로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UN 등에 도시, 농촌 인구 자료를 제공할 때 주를 달아 읍과 면은 군(농촌), 동은 도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동과 읍을 도시, 면을 군부(농촌)로 구분하기도 한다.
  - 2)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

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다급한 문제, 즉 대학입시 문제나 사교육 문제와 같은 곳에 쏠려 있다. 물론 꾸준히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주변적인 이슈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주민 이주를 막고, 더 적극적으로는 교육 우수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주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곳이 많지만, 순수하게 교육적인 개선노력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즉, 교육 외적인 효과를 목표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2010년 교육지표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시책들 즉, ‘①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②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③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 신장, ④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⑤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비교해보면, 2000년에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 참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하였는데, 표현만 조금 달리 했을 뿐 인성(참된 인간 →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광산구에서 제시한 「주요시책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향상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해 ‘①공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창의적 인재 양성, ②공공자원과 행정력 집중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농촌도시<sup>3)</sup>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하겠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준비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도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거나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양면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이런 내용들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들이 실현 가능하려면 전반적인 여건과 환경으로서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II. 일반 현황과 지역 특성

### 1. 인구

광주광역시의 세대수는 1999년에 42만 898세대이었고, 2009년에는 52만 4,093세대로 10년 사이에 약 10만 세대가 증가하였다. 각 구별로 세대수의 증감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세대수만을 보면 모든 구에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구는 작은 범위 내에서 증감하면서 증가하는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동구는 1990년대 말이나 지금이나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남구는 감소에서 증가로, 북구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산구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

3) '도농복합'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1951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간행된 다음의 논문에서 'rurban'(rural + urban)이 사용됨. Rubin, Vera D. 1951, Fifty years in Rootville; a study in the dynamics of acculturation of an Italian immigrant group in a rurban community. New York.

<표 1> 구별 세대수의 증감 비교

구 분	1998년	1999년	증감		2008년	2009년	증감	
	(A)	(B)	(B-A)	%	(C)	(D)	(D-C)	%
광주시	411,965 (100.0)	420,898 (100.0)	8,933	2.2	513,021 (100.0)	524,093 (100.0)	11,072	2.2
동 구	43,782 (10.6)	42,740 (10.2)	-1,042	-2.4	47,112 (9.2)	46,854 (8.9)	-258	-0.5
서 구	75,273 (18.3)	81,732 (19.4)	6,459	8.6	107,698 (21.0)	108,212 (20.6)	514	0.5
남 구	73,715 (17.9)	72,451 (17.2)	-1,264	-1.7	77,480 (15.1)	78,872 (15.1)	1,392	1.8
북 구	145,684 (35.4)	147,852 (35.1)	2,168	1.5	171,341 (33.4)	171,900 (32.8)	559	0.3
광산구	73,511 (17.8)	76,123 (18.1)	2,612	3.6	109,390 (21.3)	118,255 (22.6)	8,865	8.1

광주광역시의 총인구는 1999년에 135만 6,612명이었고, 2009년에는 143만 3,640명으로 10년 사이에 7만 7,028명이 증가하였다. 각 구별 인구의 증감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세대수의 증감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광산구의 인구가 9만 5,449명 증가하여 광주시 전체의 인구 증가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구별 인구수의 증감 비교

구 분	1998년	1999년	증감 (%)		2008년	2009년	증감 (%)	
광주시	1,339,441	1,356,612	17,637	1.3	1,422,702	1,433,640	10,938	0.8
동 구	133,077	128,038	-5,039	-3.8	109,963	107,772	-2,191	-2.0
서 구	248,213	267,116	18,903	7.6	304,885	299,825	-5,060	-1.7
남 구	244,382	237,138	-7,244	-3.0	213,073	213,697	624	0.3
북 구	473,148	476,833	3,685	0.8	474,121	469,410	4,711	1.0
광산구	240,621	247,487	6,866	2.9	320,660	342,936	22,276	<b>6.9</b>

1999년과 2009년 두 해의 구별 인구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구,

남구, 북구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서구(1.2%)와 광산구(5.7%)는 증가하였는데, 이중 광산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구별 인구 및 구성비 비교 (1999, 2009)

구 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1999	인구	128,038	267,116	237,138	476,833	247,487	1,356,612
	%	9.4	19.7	17.5	35.2	18.2	100.0
2009	인구	107,772	299,825	213,697	469,410	342,936	1,433,640
	%	7.5	20.9	14.9	32.7	23.9	100.0

한편 최근 3년간 각 구별 외국인 수를 살펴보더라도 내국인에 대한 통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 있는데, 광산구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다른 구들이 모두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에 보이는 반면 광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외국인 인구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 국	765,429	%	854,007	%	870,636	%
광 주 시	10,016	100.0	11,923	100.0	12,188	100.0
동구	1,046	10.4	1,201	10.1	1,152	9.5
서구	978	9.8	1,150	9.6	1,174	9.6
남구	866	8.6	1,018	8.5	943	7.7
북구	2,832	28.3	3,392	28.4	3,343	27.4
광산구	4,294	42.9	5,162	43.3	5,576	45.7

## 2. 학령 인구와 학생 수

기초자치단체별 초·중등학교 학생의 연령에 해당되는 학령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6~11세)과 중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12~14세) 인구는 북구와 광산구에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7%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농촌도시의 특성을 지닌 광산구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령 인구의 비율(30.2%, 27.1%)이 전체 인구의 비율 23.9% 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구별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비율  
(2009. 12. 31 기준)

구 분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명	%	명	%	명	%
동 구 ( 7.5)	5,994	5.06	3,685	5.11	4,257	5.89
서 구 (20.9)	25,776	21.77	15,752	21.84	15,553	21.50
남 구 (14.9)	14,357	12.13	10,272	14.24	11,070	15.30
북 구 (32.7)	36,477	30.81	22,838	31.67	23,523	32.52
광산구 (23.9)	35,789	<b>30.23</b>	19,568	<b>27.13</b>	17,929	<b>24.79</b>
계	118,393	100.00	72,115	100.00	72,332	100.00

출처: 광주광역시(2009).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6> 구별 학령인구와 학생 수의 차이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 인구(A)	학생수 (B)	A-B	학령 인구(A)	학생수 (B)	A-B	학령 인구(A)	학생수 (B)	A-B
동 구	5,994	6,340	-346	3,685	3,425	<b>260</b>	4,257	6,645	-2,388
서 구	25,776	26,612	<b>-836</b>	15,752	14,201	1,551	15,553	7,033	8,520
남 구	14,357	15,838	-1,481	10,272	11,700	<b>-1,428</b>	11,070	19,551	-8,481
북 구	36,477	37,715	<b>-1,238</b>	22,838	23,035	-197	23,523	19,585	3,938
광산구	35,789	35,085	704	19,568	18,110	1,458	17,929	14,275	3,654
계	118,393	121,590	-3,197	72,115	70,471	1,644	72,332	67,089	5,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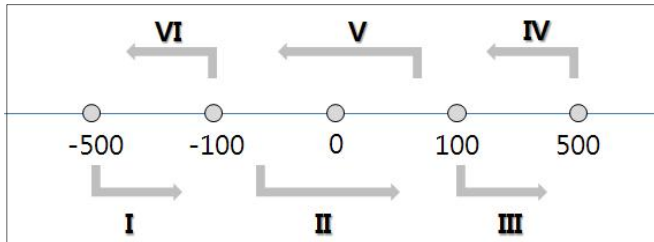
<표 7> 학령인구(A)와 학생수(B) 차이(A-B)의 변화 추이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년	2009년	변화*	2000년	2009년	변화*	2000년	2009년	변화*
동 구	-628	-346	I	-765	260	II	-1,457	-2,388	VI
서 구	281	-836	V	134	1,551	III	7,480	8,520	III
남 구	-248	-1,481	VI	-33	-1,428	VI	-7,465	-8,481	VI
북 구	1,551	-1,238	V	-970	-197	I	690	3,938	III
광산구	2,042	704	IV	1,061	1,458	III	-1,292	3,654	VI
계	2,998	-3,197	V	-568	1,644	II	-2,044	5,243	II
Σ절대값	4,750	4,605		2,963	4,894		18,564	26,981	

\* 변화의 유형

I: - 차이 폭의 감소 / II: -에서 +로 변화 / III: + 차이 폭의 확대  
 IV: + 차이 폭의 감소 / V: +에서 -로 변화 / VI: - 차이 폭의 확대

<그림 1> 차이의 변화 유형



여기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거나, 실제로 학생이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것이다. 플러스(+)로 표시된 부분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일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을 기초로 조사한 학령인구와 학교의 소재지를 기초로 조사한 학생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거나, 유학, 제도권 밖의 비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들이라면 학령인구는 많고 학생 수는 늘 적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학교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여기서는 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7>에서 차이의 '절대값'을 모두 더 한 것은 지역(여기서는 구)을 넘어서 이동하는 방향이 나가는 것이든 들어오는 것이든 전체 이동량 또는 불일치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줄어들었고, 중학교는 2,963에서 4,894로 1.7배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18,564에서 26,981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의 폭이 감소한 유형 I 과 유형 IV는 그런 문제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유형 III과 유형 VI은 그런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광산구의 초등학교(IV)나 북구의 중학교(I)의 경우는 문제가 완화된 예이고, 동구의 고등학교(VI), 서구의 중학교(III)와 고등학교(III), 북구의 고등학교(III), 광산구의 중학교(III)와 고등학교(VI)는 모두 문제의 성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유형 VI에 속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바, 다른 지역에서 통학해서 남구로 유입하는 학생이 많은 현상이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광산구 교육여건의 현황 분석

#### 1. 학교

2009년 광주광역시의 구별 인구 구성비(동구 7.5%, 서구 20.9%, 남구 14.9%, 북구 32.7%, 광산구 23.9%)에 비추어 보면, 광산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0년에는 인구 구성비(동 9.4%, 서

19.7%, 남 17.5%, 북 35.2%, 광산 18.2%)에 비추어 각급 학교 수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1.1%, 중학교 -2.3%, 일반계 고교 -4.6%, 전문계 고교 10.4%의 차이를 보였었다. 2000년에 광산구에 6개교이던 일반계 고등학교가 2009년 11개교로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표 8> 참조).

<표 8> 구별 각급 학교수 (2009. 4. 1 기준)

	광주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인구구성비		7.5	20.9	14.9	32.7	23.9
유치원	246 (100)	15 (6.1)	54(22.0)	35(14.2)	80(32.5)	62(25.2)
초등학교	145 (100)	11 (7.6)	27(18.6)	21(14.5)	45(31.0)	41(28.3)
중학교	84 (100)	6 (7.1)	14(16.7)	15(17.9)	27(32.1)	22(26.2)
일반계고교	52 (100)	6 (11.5)	7(13.5)	13(25.0)	15(28.8)	11(21.2)
전문계고교	13 (100)	-	-	5(38.4)	4(30.8)	4(30.8)

( ) : %

학교당 학급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32.7개로 광주시 평균치(29.0개)를 상회하던 것이 2009년 28.7개로 축소되면서 학교의 규모가 광주시의 평균치(28.1개)에 근접하게 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는 21.5개에서 22.2개로, 일반계 고교는 20.8개에서 23.5개로, 전문계 고교는 33.0개에서 33.5개로 각각 증가하였지만 광주시 평균치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표 9> 참조).

<표 9> 구별 각급 학교의 학교당 학급 수 (2009. 4. 1 기준)

	광주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유치원	3.04	2.13	3.33	3.34	2.78	<b>3.16</b>
초등학교	28.15	20.73	31.56	25.48	28.67	<b>28.71</b>
중학교	22.29	15.83	26.71	20.27	22.59	22.23
일반계 고교	25.98	29.67	26.43	26.38	25.73	<b>23.55</b>
전문계 고교	34.92	-	-	37.00	33.75	33.50

## 2. 학생

2009년의 구별 인구 구성비(동 7.5%, 서 20.9%, 남 14.9%, 북 32.7%, 광산 23.9%)에 비추어 보면, 광산구는 일반계 고교 학생 수의 비율(19.1%)은 낮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 고교의 학생 수는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 학생수가 2000년에는 11.4%였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구대비 학생 수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표 10> 참조).

<표 10> 학교급별 학생 수(전국, 광주, 구별)

(2009. 4. 1 기준)

	전국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유치원	537,361	17,193	644	4,337	2,566	5,100	4,546
%		100.0	3.7	<b>25.2</b>	14.9	29.8	<b>26.4</b>
초등학교	3,474,395	121,590	6,340	26,612	15,838	37,715	35,085
%		100.0	5.2	21.9	13.0	31.0	<b>28.9</b>
중학교	2,006,972	70,471	3,425	14,201	11,700	23,035	18,110
%		100.0	4.9	20.2	16.6	32.7	<b>25.7</b>
일반계 고교	1,484,966	51,470	6,645	7,033	13,095	14,896	9,801
%		100.0	<b>12.9</b>	13.7	<b>25.4</b>	28.9	<b>19.1</b>
전문계 고교	480,426	15,619	-	-	6,456	4,689	4,474
%		100.0			<b>41.3</b>	30.0	<b>28.7</b>

한편, 학교의 규모를 알아보면, 2000년의 통계치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체의 학교당 학생 수도 줄었고, 광산구의 각급 학교 학교당 학생 수도 줄어들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1,360명이던 것이 856명으로, 중학교는 851명이던 것이 823명으로 각각 감소하여 과대 학교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광산구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260명, 중학교는 177명, 전문계 고교는 422명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교는 77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학교당 학생 수(전국, 광주, 구별)  
(2009. 4. 1 기준)

	전 국	광주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유치원	64.18	69.9	42.9	80.3	73.3	63.8	73.3
초등학교	596.05	838.6	576.4	985.6	754.2	838.1	855.7
중학교	646.16	838.9	570.8	1,014.4	780.0	853.1	823.2
일반계 고교	968.04	989.8	1,107.5	1,004.7	1,007.3	993.1	891.0
전문계 고교	695.84	1,201.5	-	-	1291.2	1172.3	1118.5

우리나라 전체의 학급당 학생수 변화를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유치원 4.7명, 초등학교 7.9명, 중학교 3.6명, 일반계 고교 8.3명, 전문계 고교 10.5명의 감소를 각각 나타냈다. 같은 기간 중 광산구의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유치원 5.3명,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2.7명, 일반계 고교 4.9명, 전문계 고교 7.4명의 감소를 보이면서 과밀학급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광산구와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 차이의 변화를 보면, 그 차이의 폭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 전국 수준보다 낮았던 수치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전국 수준을 상회하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급당 학생수  
(각 년도 4. 1 기준)

구 분		전 국 (A)	광주 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B)	B-A
유치원	2009	21.57	23.02	<b>20.13</b>	24.09	21.93	<b>22.97</b>	<b>23.19</b>	1.62
	2000	26.31	27.88	<b>24.05</b>	28.75	<b>28.15</b>	<b>27.73</b>	<b>28.45</b>	2.14
초등학교	2009	27.82	29.79	<b>27.81</b>	<b>31.23</b>	29.60	29.24	29.81	1.99
	2000	35.75	40.09	37.55	40.14	39.33	40.08	41.59	5.83
중학교	2009	34.37	37.64	<b>36.05</b>	37.97	38.49	37.76	37.03	2.67
	2000	38.01	39.50	<b>36.23</b>	40.94	39.18	39.73	39.68	1.67
일반계 고교	2009	35.87	38.10	<b>37.33</b>	38.02	38.18	38.59	37.84	1.98
	2000	44.13	43.27	43.89	43.88	43.03	43.20	42.70	-1.43
전문계 고교	2009	29.83	34.40	-	-	34.89	34.73	33.39	3.56
	2000	40.31	42.45	-	45.53	43.12	42.29	40.83	0.52

### 3. 교원

#### 1)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광주광역시 전체가 2000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에 33.1명 수준이던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 22.3명으로 11명 감소, 중학교의 경우 22.4명에서 21.6명으로, 일반계 고교는 19.7명에서 17.8명으로, 전문계 고교는 19.4명에서 15.9명으로 각각 감소되었다.

<표 13> 교원 1인당 학생수 (2009. 4. 1 기준)

구 분	광주시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유치원	15.02	15.33	13.90	14.75	15.22	16.12
초등학교	22.34	20.52	23.45	22.18	21.80	22.58
중학교	21.60	20.15	22.51	21.67	21.43	21.41
일반계 고교	17.77	17.67	18.22	17.48	17.75	17.91
전문계 고교	15.94	-	-	16.94	15.58	15.01

특히 광산구의 통계치를 보면,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명 정도 많은 것을 제외하면 광주시 전체의 평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4>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2000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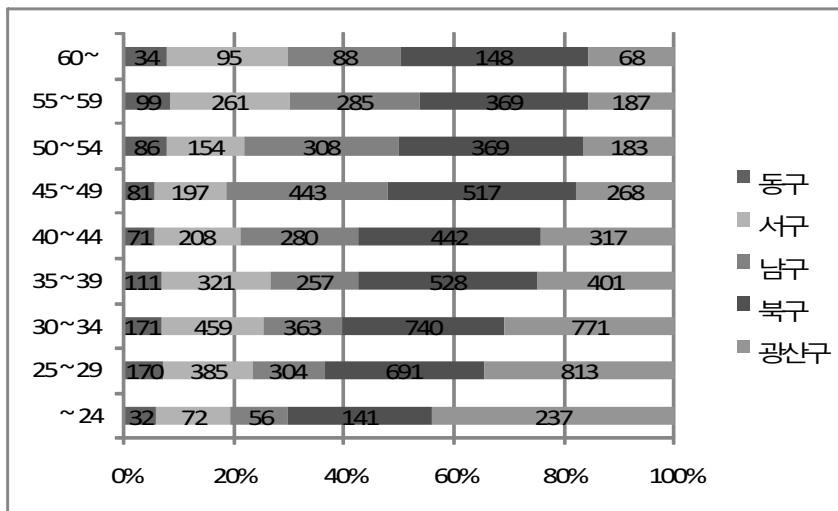
구 분	전 국		광주시		광산구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유치원	19.47	15.17	19.09	15.02	18.80	16.12
초등학교	28.71	19.85	33.11	22.34	<b>34.97</b>	<b>22.58</b>
중학교	20.09	18.40	22.42	21.60	22.73	21.41
일반계 고교	20.90	16.69	19.70	17.77	19.48	17.91
전문계 고교	18.23	13.33	19.39	15.94	17.79	15.01

그러나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산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2009년 현재 유치원 1명,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3명, 일반계 고교 1.2명, 전문계 고교 2.9명의 수준에서 각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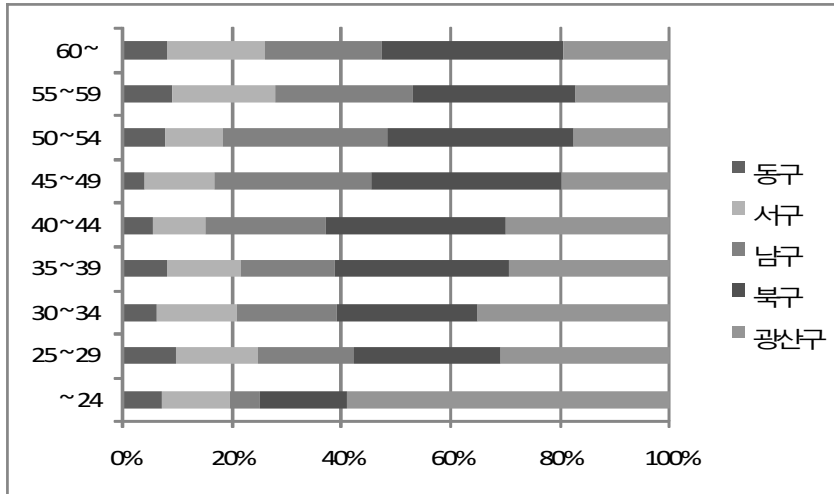
## 2) 교원의 연령 분포

한편, 각 연령대별로 교원의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24세 이하의 초임교원 중 40% 이상이 광산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30세 미만의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이런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의 교사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 학교라는 조직이 제 기능을 하도록 기여할 것인가? 교원의 연령이나 경력은 양면성을 지닌다. 경험이 풍부해지면 문제해결능력과 융통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자칫 타성에 젖어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결여되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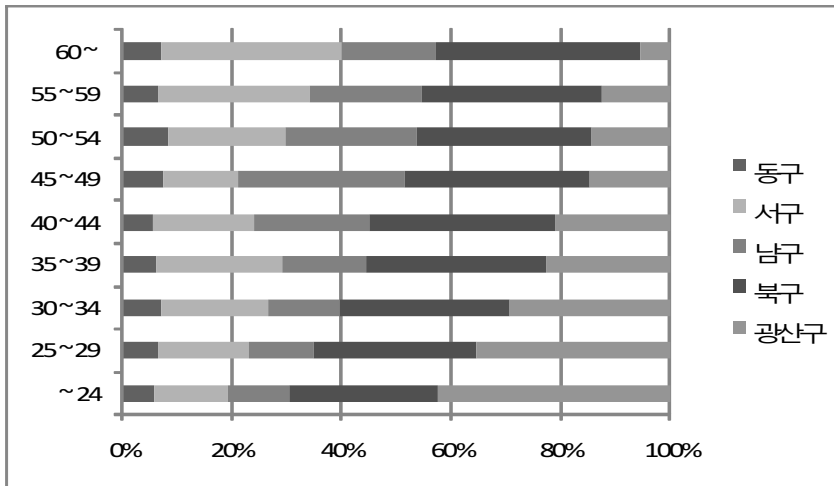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별 교원의 분포



<그림 3> 연령대별 남자교원의 구성비



<그림 4> 연령대별 여자교원의 구성비



교원의 연령대별 구성분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급학교별로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5>부터 <표 18>까지 참조).

유치원의 교원의 경우, 동구는 24세 이하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30~34세는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24세 이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광산구는 35~39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유치원 교원 연령대별 구성비  
(2009. 4. 1 기준)

구 분	~ 24세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 국	26.67	29.67	11.28	8.16	11.19	7.67	2.85	1.16	1.34
광주시	26.99	30.48	14.24	8.91	7.69	5.85	3.32	1.14	1.40
동구	<b>14.29</b>	26.19	<b>30.95</b>	2.38	14.29	4.76	2.38	2.38	2.38
서구	<b>31.73</b>	33.65	12.18	5.13	5.77	5.13	3.21	1.28	1.92
남구	29.31	28.16	14.37	6.90	8.05	8.05	2.30	1.15	1.72
북구	25.07	28.96	13.73	10.45	8.66	6.57	4.48	0.90	1.19
광산구	24.47	30.85	14.54	<b>13.48</b>	7.45	4.61	2.84	1.06	0.71

출처: 광주교육통계연보 (2009);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광산구에서는 34세 이하 교원의 구성비가 65%를 넘고 있는 바 동구 51%, 서구 46%, 남구 46%, 북구 54%와 비교가 된다. 특히 전국 평균치(39%)와 비교하면 거의 배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 초등학교 교원 연령대별 구성비  
(2009. 4. 1 기준)

구 분	~ 24세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 국	4.86	15.95	18.35	15.21	12.39	11.80	8.10	10.48	2.86
광주시	7.04	22.75	24.68	13.52	8.99	3.91	3.36	11.14	4.61
동구	6.47	23.62	21.04	12.30	10.36	6.15	4.53	10.03	5.50
서구	4.93	17.89	23.35	14.63	8.63	4.14	4.41	15.86	6.17
남구	4.76	19.61	22.27	13.03	10.22	5.60	3.78	14.99	5.74
북구	5.84	22.89	25.14	14.62	9.31	3.76	2.89	10.69	4.86
광산구	<b>11.07</b>	<b>27.41</b>	<b>26.96</b>	11.97	8.04	2.70	2.70	6.63	2.51

출처: 광주교육통계연보 (2009)

중학교 교원의 경우도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34세 이하 교원은 각 연령대별로 모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연령대는 그 반대로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17> 중학교 교원 연령대별 구성비

(2009. 4. 1 기준)

구 분	~ 24세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 국	2.18	12.50	15.22	12.72	18.21	20.11	11.77	5.63	1.68
광주시	2.76	17.90	19.01	14.04	12.42	13.34	10.09	7.76	2.70
동구	3.53	19.41	18.82	13.53	8.82	12.94	8.82	12.35	1.76
서구	1.90	17.27	21.24	17.91	11.41	11.89	7.92	7.61	2.85
남구	2.22	12.96	13.15	10.19	11.67	18.52	15.74	11.67	3.89
북구	2.05	15.16	16.37	14.42	14.70	15.72	10.88	7.44	3.26
광산구	4.49	24.70	24.47	13.24	11.47	8.16	7.33	4.85	1.30

출처: 광주교육통계연보 (2009);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표 18> 고등학교 교원 연령대별 구성비

(2009. 4. 1 기준)

구 분	~ 24세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 국	1.42	11.92	16.16	13.59	15.05	20.66	13.54	6.06	1.60
일 반 계 고 교	1.21	13.63	14.08	11.11	11.43	22.02	15.84	8.56	2.11
동구	1.60	17.02	19.68	13.30	6.38	10.64	15.16	12.50	3.72
서구	1.04	18.91	15.54	10.88	9.84	19.43	13.99	8.55	1.81
남구	0.53	8.81	13.89	10.28	12.15	25.23	17.49	9.88	1.74
북구	1.07	10.85	11.08	10.73	11.92	25.98	18.47	7.87	2.03
광산구	2.19	18.46	14.08	11.52	14.26	21.21	11.33	5.12	1.83
전 문 계 고 교	1.66	10.12	12.06	11.34	14.69	24.41	15.43	8.03	2.26
광주시	3.06	14.90	13.57	10.41	9.49	22.45	13.16	9.59	3.37
동구	-	-	-	-	-	-	-	-	-
서구	-	-	-	-	-	-	-	-	-
남구	1.57	7.35	7.61	8.40	13.91	29.92	17.06	10.76	3.41
북구	2.99	13.62	11.96	9.97	7.64	21.59	15.61	12.62	3.99
광산구	5.03	25.84	22.82	13.42	5.70	13.76	5.70	5.03	2.68

출처: 광주교육통계연보 (2009);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일반계 고교 교원 중 34세 이하의 구성비율은 전국 29.5%, 광주시 28.9%인데 비해 광산구는 34.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교 교원 중 34세 이하의 구성비율은 전국 23.8%, 광주시 31.5%인데 비해 광산구는 53.7%로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지난 10년 사이에 광주광역시의 세대수는 42만 898세대에서 52만 4,093세대로, 인구는 135만 6,612명에서 143만 3,640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대략 10만 세대에 7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그 중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 덜 안정된 젊은 부부 중심의 농촌도시의 특성을 지닌 광산구의 변화를 보면, 4만 2,132세대가 증가하였고 9만 5,449명이 더 늘어났다. 세대 수의 변화로는 광주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인구의 증가는 광주시의 증가분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 내에서의 이동뿐 아니라 광주권 밖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수용하는 일이 대부분 광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학령인구와 학생 수가 차이나는 불일치 현상은 동구의 초등학교, 북구의 중학교와 광산구의 초등학교에서는 그 폭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학생수보다 더 많은 유형(Ⅲ)은 서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북구의 고등학교, 광산구의 중학교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학생수가 학령인구보다 더 많은 유형(Ⅵ)은 동구의 고등학교에서, 남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그리고 광산구의 고등학교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학교 수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남구에는 인구(14.9%)에 비해 중학교(17.9%)와 일반계 고등학교(25.0%)가, 광산구에는 인구(23.9%)에 비해 초등학교(28.3%)와 중학교(26.2%)가 소재하여 있어 여전히 일부 학교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의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학교당 학급수 32.7개, 학교당 학생수 1360명으로 과대학교가 많았었는데, 2009년에는 광주시 평균치에 근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광산구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2000년에 비해 유치원 5.3명,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2.7명, 일반계 고교 4.9명, 전문계 고교 7.4명의 감소를 보이면서 과밀학급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광산구와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 차이의 변화를 보면, 그 차이의 폭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 전국 수준보다 낮았던 수치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전국 수준을 상회하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광주시 전체는 물론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광산구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대폭 감소되면서 광주시 평균치에 모두 근접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3명, 일반계 고등학교 1.2명, 전문계 고등학교 2.9명 수준에서 각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의 연령 분포 면에서 24세 이하의 교원 중 40% 이상이 광산구에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별로 보아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34세 이하의 교원을 기준으로 전국 수준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65%(전국 39%), 중학교는 54%(전국 30%), 일반계 고등학교는 35%(전국 30%), 전문계 고등학교는 54%(전국 24%)로 젊은 연령층 교사의 편중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일 지역에 충분한 학교를 개설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교사 및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연령이나 경력 면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의 다양화 및 시설의 확충: 형평성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 공동체의 형성: 교육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추세에 맞는 교육 계획을 연구, 제안, 모니터 하는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교육공동체를 구성한다.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중에서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는 일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한다. 과밀학급, 과대학교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현저히 개선된 것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다진 것과 다름이 없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일은 시차에 따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보면, 근무지 차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근무환경이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이른바 격오지 근무를 강제할 수도 없고, 농어촌 지역과 같은 곳의 인구 감소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일을 교사들의 열정에만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제안한 바 있었는데, 2009년 전국에 25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이중 20개교가 201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는 광산구에 2개의 학교가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과 50년 전에 시작한 경제개발 노력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세계 최빈국의 오명을 씻고 이제는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런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교육은 과연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의 역동성, 교육, 건강, 정치 환경, 삶의 질 등 5개 부문 평가 총점에서 83.28을 받아 100개 국가 중 15위 국가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교육'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경제 역동성은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3위였다(Newsweek, Aug 15, 2010).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8325억 달러) 세계 15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갤럽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148개국 35만 명 성인을 대상으로 이민 가고 싶은 이상적인 나라 조사에서는 50위 국가로 처졌다. 이민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경우 한국 인구는 8%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을 선망하는 외국인보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잠비아,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체코 국가보다도 순위에서 밀렸다. 아무리 작은 문제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초적인 교육 여건을 구비하는 일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 광주광역시, 2009, 『주민등록인구통계』, 광주: 저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2009, 『광주교육통계연보』, 광주: 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선5기 주요시책 추진방향』.
- 유승우, 2001, “광산구 초중등교육의 여건 분석과 내실화 방안”,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2(1) pp. 211-230.
- Newsweek, 2010, “The world’s best countries: A Newsweek study of health, education, economy, and politics ranks the globe’s top nations.” Retrieved Nov 1. from <http://www.newsweek.com/2010/08/15/interactive-infographic-of-the-worlds-best-countries.html>.
- West, A., 2006, “The pre-school education market in England from 1997: Quality, availability, affordability and equity.” *Oxford Review of Education*. 32(3) pp. 283-301.

# Rethink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K-12 Schools in a Urban Area

You, Seung-woo  
(Honam University))

## Abstract

A fundamentally sound educational environment is possible if stakeholders endeavor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secure its accessibility. Both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schools nationwide so that students do not have to travel far in search of better school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number of school-aged children and students, and the number of teachers between 2000 and 2009.

**Keywords** : K-12 School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Gwangsan-gu